

설계교과목과 지식재산권 연계 프로그램 개발

서양곤*, 김은주¹, 김륜경¹, 서재성¹
경상대학교 생명화학공학과; ¹경상대학교 공학교육혁신센터
(ygseo@gnu.ac.kr*)

국제화 시대를 맞아 공학교육에 대한 국제 표준화(Global Standard) 작업이 미국을 위시한 세계 각국에서 진행되고 있고, 공학교육의 표준화 작업은 21세기 지식 정보화 사회에서 요구되는 공학교육의 기반을 확립하고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엔지니어를 양성이 필요하게 되었다. 공학교육을 생산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바꾸고 시대적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창의적인 엔지니어들을 배출하기 위하여 공학교육에 새롭고 창의적인 접근방법의 하나로 공학교육인증제를 도입하였다. 결국, 산업체를 포함한 공학교육 현장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각 공과대학에 대해 인증을 함으로써 생산력을 제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경상대학교는 2002년 처음으로 공학교육인증제를 도입하였고, 생명화학공학과는 2006에 이르러 공학교육인증제를 도입하였다. 현재 7개의 인증프로그램을 포함하여 15개의 심화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본 연구에서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지닌 역량있는 학생 발굴, 창작의욕 고취시키고 공학교육(종합설계, 캡스톤디자인)과 지식재산권 연계를 통한 공학에 대한 인식 고취 및 관심을 증진 그리고 고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다학제 융합설계 능력 고취시킬 수 있게 설계교과목과 지식재산권 연계 방안을 강구하였다. 대상은 캡스톤디자인을 통해 현장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산업체, 공학과 관련된 전공을 가지는 학생 및 지도교수의 순수 창작품이다.